

재단 “해학·풍자넘은 직설적 표현 문제” 작가 “사전 검열 진정한 예술 죽이는 것”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표현해 논란이 된 홍성담 작가의 걸개그림 '세월오월'이 전시에서 사실상 제외되자 참여작가와 예술인들이 지난 8일 오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특별전 개막식에서 대형 프린트 작품을 펼치며 항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세월오월’ 파문 왜?

광주비엔날레가 논란이 된 홍성담 작가의 작품을 특별전에서 사실상 제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과 광주시립미술관은 “홍 작가의 작품이 해학과 풍자보다는 너무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아 수정을 요청했다”며 “홍 작가가 수정한 작품도 문제가 된 부분을 지우고 다시 그린 것이 아니라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수정한 것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수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홍 작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지역 문화계에서는 “광주비엔날레가 스스로 진척상을 얻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사태로 책임 큐레이터 윤범모가 전대 교수가 사퇴하는 등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 프로젝트 행사가 파행으로 치닫되면서 오는 9월5일부터 열리는 2014광주비엔날레 본 행사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작품 수정 문제는 ‘작품 전시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책임 큐레이터인 윤범

수십억 지원 정부 의식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일부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 계속 거둬들인 파행에 9월 비엔날레 우려 목소리

모가 전대 교수가 제기해온 문제였다.

윤 교수는 지난 7월부터 광주에 머물며 특별전에 전시될 걸개그림 ‘세월오월’ 작업을 하고 있던 홍 작가를 만나 “너무 정치적인 사안에 치우친 것처럼 보인다”며 일부 수정을 요구했고 홍 작가도 윤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광주시가 홍 작가에게 작품 수정 요청과 함께 “수정이 안 될 경우 작품을 전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시작됐다.

홍 작가는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광주시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작품 수정을 거부하다 논란이 계속되자 전시 개막 당일(지난 8일) 허수아비로 표현된 박 대통령 모습 위에 담그

림을 붙인 수정본을 광주비엔날레 측에 제출했다. 그리고 “국가폭력에 저항하다가 울부짖는 민중들의 모습을 담으려 승화시켰다”고 설명, 논란이 끝나는 것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이날 “큐레이터 4명과 회의를 했지만 큐레이터 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작품 설치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윤 교수마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10일 사퇴했다.

이번 논란은 광주시와 재단이 광주비엔날레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됐다. 윤 교수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시와 재단은 추후 진행되는 행사

의 예산 삭감을 우려했고, 근거 없는 옳다고 생각해서 작가에게 작품 수정을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윤정현 광주시장이 전부터 ‘문화 정책에 대해서 예산은 지원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으로서 정부와 관계, 도시를 위한 국가의 예산 지원문제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풀이되고 있다.

홍 작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결국 전시가 안 될 줄 알았다”며 “가장 자유롭게 담고 투병해야 할 예술가들이 사전 검열을 받으면서 정신이 멍들고 진정한 예술가가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세월오월’ 전시 유보는 책임 큐레이터의 불찰 속에서 강행된 결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윤 교수가 전시 파행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홍 작가는 이번 작품을 내년 5월 독일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할 계획이다.

/김정원기자kki@kwangju.co.kr

광주 U대회 역도 평양 개최 무산

박주선 “정부 소극 태도 탓”...홀대론 다시 점화

조직위는 ‘정부 감싸기식’ 보도자료 배포해 논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내년 7월 광주에서 열리는 U대회에서 역도종목 신설 후 북한개최를 추진했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무산된 것으로 드러난 논란이다.

특히 북한도 광주 U대회 역도종목 개최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광주 U대회 재정지원 축소·지연에 이은 홀대론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주 U대회 조직위는 ‘FISU측이 자진 철회했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감싸기식’ 보도자료를 배포해 반목을 사고 있다. 이 같은 광주시의 행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회의 운영성격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주선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제안한 역도종목 신설 후 북한 개최 계획에 대해 한국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광주U대회 남북 분산개최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광주시로부터 받은 ‘2015 광주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관련 추진사항’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한국을 방문한 에릭 상트롱 FISU 사무총장은 역도종목을 신설해 북한에서 개최하자는 제안을 했다.

상트롱 사무총장은 광주 U대회 조직위에 공문을 보내 “FISU는 남북관계 증진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광주뿐만 아니라 북



박주선 의원

한에서도 대회 관련 행사가 이뤄지기를 제안해 왔다”면서 “(FISU 측은) 현재 북한방문을 고려하고 있지만, 역도종목 신설 후 북한에서 개최하는 계획은 대한민국 당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강운태 전 광주시장도 지난 3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서 FISU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큰 틀에서 남북 공동 개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한국 정부의 승인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트롱 회장은 지난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FISU 집행위에서 역도경기 북한 개최 제안을 철회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FISU측 제안에 대담한 태도도 가능한 일을 ‘임의로만 통일’을 외치던 현 정부가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주 U대회 조직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FISU의 제안을 정부에 알리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하지 않았다”며 “FISU집행위에서 특정 종목은 분산 개최하는 것은 U대회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진 철회했으며, 정부측의 반대나 답변거부로 무산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주선 의원은 “FISU측 제안에 대담한 태도도 가능한 일을 ‘임의로만 통일’을 외치던 현 정부가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주 U대회 조직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FISU의 제안을 정부에 알리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하지 않았다”며 “FISU집행위에서 특정 종목은 분산 개최하는 것은 U대회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진 철회했으며, 정부측의 반대나 답변거부로 무산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주선 의원은 “FISU측 제안에 대담한 태도도 가능한 일을 ‘임의로만 통일’을 외치던 현 정부가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주 U대회 조직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FISU의 제안을 정부에 알리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하지 않았다”며 “FISU집행위에서 특정 종목은 분산 개최하는 것은 U대회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진 철회했으며, 정부측의 반대나 답변거부로 무산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에 세계적 복합 리조트 들어서나

이낙연 지사·MGM 리조트

9월까지 후보자 기초조사 합

세계적인 카지노 리조트 회사인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MGM Resorts International, 이하 MGM 리조트)이 전남에 투자할 의향을 밝혀줌에 따라 실제 투자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를 추진중인 전남도는 MGM 리조트 측에 6곳의 후보지를 제시했으며, MGM 리조트 측은 오는 9월말까지 기초조사를 마칠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 9일 윌리엄 스캇(William Scott) MGM 리조트 CEO를 서울에서 직접 만나 리조트 투자유치 방안을 협의했다. 여름휴가 중이었던 이 지사는 우기종 경제부지사, 주동식 일자리정책실장 등과 함께, 윌리엄 스캇 CEO는 John 김 비즈포스트(Bizpost) 그룹 회장,



이낙연 지사

Edward 구 고문 등을 만났다.

미국 네바다 주에 본사를 둔 MGM사는 MGM 그랜드(MGM Grand)와 벨라지오(Bellagio), 미라지(The Mirage) 등 라스베이거스의 대표적 호텔·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카오 등에도 진출해 있다.

이 지사는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본사를 둔 자원개발 전문회사 비즈포스트 그룹의 존 김 회장과는 지난 3월 투자협약을 체결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 의료병원 및 간호대학 건립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비즈포스트 측은 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국내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한 뒤 1차 외국자본 투자 신고(10만 달러)를 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www.HanaTour.com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HNT 하나투어
전화 | 062) 228-1199
주소 | 광주 동구 불로동 96-7번지
근무시간 : 09:00-20:00 (연중 무휴)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2014년 하나투어와 함께, 즐거운 여름휴가 떠나세요!

[무안출발] 대만 전세기
9월 6일 출발 (추석연휴) 3박 5일

<p>출발일 5월 '아류/지우관'</p> <p>출발지 ▶ 가이도/기타령비 830-</p> <p>특산 ▶ 명고릴수 2인 1석 제공</p> <p>특산 ▶ 몽골리안880, 시브시브</p>	<p>출발일 5월 '화현/아류/101빌딩'</p> <p>출발지 ▶ 가이도/기타령비 포함</p> <p>특산 ▶ 명고릴수 2인 1석 제공</p> <p>특산 ▶ 몽골리안880, 시브시브</p>
---	--

히니문너를 위한 지역별 히니문 상품

<p>AAW199-1 코사무이 6일 누 실라바디 파노라믹 풀빌라</p> <p>출발지 ▶ 가이도/기타령비 포함</p> <p>출발일 ▶ 9월 - 일/월요일 오전출발</p> <p>특산 ▶ 스타워킹 워터/빙게이/냉동 중점, 리조트 내 디너 1회, 리조트 내 에어바 테라피 60분 제공 등</p>	<p>AAW103-6 다낭 5일/6일 노보텔 4유니온미아 웨베드 풀빌라</p> <p>출발지 ▶ 가이도/기타령비 포함</p> <p>출발일 ▶ 10월 - 월/목요일</p> <p>특산 ▶ 온천 스파, 워터, 푸어전미아 스타 스위트, 리조트 2회 제공, 호이안 사바관광</p>
--	--

상담 및 예약 :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p>세정투어여행사 (삼주지구 세정아울렛 3층)</p> <p>062)464-8000</p>	<p>리치투어 (광산구 월계동 첨단CO타워 1층)</p> <p>062)431-0102</p>
<p>가람여행사 수원점 (수원동 국민은행사거리 우림빌딩 2층)</p> <p>062)955-5230</p>	

[무안출발] 중국 여행

<p>출발일 8월 29일(금)</p> <p>출발지 ▶ 가이도/기타령비 840</p> <p>출발지 ▶ 가이도/기타령비 840</p> <p>특산 ▶ 상해 서비스, 발미사지</p> <p>특산 ▶ 해가든, 몽골리안</p>	<p>출발일 9월 1일, 9월 8일(월)</p> <p>출발지 ▶ 가이도/기타령비 840</p> <p>출발지 ▶ 가이도/기타령비 840</p> <p>특산 ▶ 상해 서비스, 발미사지</p> <p>특산 ▶ 해가든, 몽골리안</p>
---	---

히니문너를 위한 지역별 히니문 상품

<p>PAW401 시드니/골드코스트 7일 대한항공 상품</p> <p>출발지 ▶ 가이도/기타령비 840</p> <p>출발일 ▶ 10월 - 12월 일요일</p> <p>특산 ▶ 골드코스트 5성급 호텔 1박 무료호텔, 서브무어, 열기구</p>	<p>SSW201-0 간쑤 7일 하이티티 리조트</p> <p>출발지 ▶ 가이도/기타령비 포함</p> <p>출발일 ▶ 10월 - 일/목요일</p> <p>특산 ▶ 로아딩 오션프론트, 웨브로비티호텔, 리조트 크라이 550</p>
---	--

방문 EVENT!
히니 두드드 카페 무료 음료권 증정
달 여행용 트래블백 제공

예약 EVENT!
히니 생당 하나투어 (40만) 마일리지 제공!
달 롯데면세점 5만원 선불카드 교환권 제공
(14년 12월 31일까지 출발객 한정)
셋 지역별 다양한 특전 제공

하나투어 마일리지 받고 다양한 혜택 누리기!

- 전세계 항공권/호텔 여행
- 문화공연 예매 하나프리 Ticket
- 쇼핑여행상품/라이프스타일/에어티켓/항공권, 가전, 식료품(편)
- 생생서비스 모바일 상품권/마트/식주용품/화카(편)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여행상품 가격표에 부속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항보, 관광진흥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항목 포함.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함. ■ 가이드/전대 가이드/전대 가이드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택/전대/현지에서 고객의 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관광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상황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중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철도(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